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강준식(김정연B), 공희라, 김미희, 김정환(임영미), 김창길, 김춘화, 김한나, 박권재, 박복례, 박애은, 방원식(이난수), 박근영(윤 숙), 박금신, 송형기(김현숙), 윤병호(양영욱), 윤영준(박진숙), 이영순, 이향교, 장복순, 장윤주(김현진),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채영엽, 최상길(이미향), 허봉선, 황상근, 무명.(총27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성종, 김만형, 김미희, 김재인(이강우), 김정연B, 김준구(이소은), 김지환(유소정), 김태준(박복순), 김한나, 박부용, 박춘자, 방원식(이난수), 서재희, 송다해, 신경숙, 윤정호(유옥자), 이순애, 이영숙B, 이영순, 이복남, 장윤주,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채영엽, 최상길, 최순재, 허봉선.(총27명)

♣ 감사헌금

이필레, 김경엽(손경아), 김미희, 김병율(이영숙), 김준구(이소은), 김창길(백경자),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박권재, 박부용(최귀남), 박순자, 박종삼(이명원), 박춘자, 박희균, 방복순, 윤병호(양영욱), 윤정호(유옥자), 이종문, 장성자, 전순봉, 정경순, 채영엽, 최선미, 최현옥, 허봉선, 황영욱, 무명.(총30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레, 김수현, 김유준,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김민성, 민옥희, 박은숙, 박정숙, 박해진,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욱, 양말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순애, 이복남, 이인숙, 정승훈, 정옥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홍은민, 홍준민, 황영욱, 무명.(총38명)

♣ 월정헌금

김원재, 박춘자, 방복순, 최순재.(총4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37주: 로마서 4장 1절 - 6장 23절				
주 일	로마서 4장 1 - 8절			
월요일	로마서 4장 9 - 17절	목요일	로마서 5장 12 - 21절	
화요일	로마서 4장 18 - 25절	금요일	로마서 6장 1 - 11절	
수요일	로마서 5장 1 - 11절	토요일	로마서 6장 12 - 23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영원 이해석 정광식 이원가 윤영원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김성종		
	전도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위자	할렐루아 : 김한나 시온·애덴 : 최원지	호산나 : 김안나 렐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김민지 김미희 유광희 주혜정 정혜지 공희라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룙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박애은 조상현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욱 미국: 김다니엘 미국: 최옥희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철 A X 국: 이분옥 A X 국: 박동권 김영화	
		태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동포시활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6. 9. 4 주일 예배 설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본문: 누가복음 10장 30~37절

본문 25절에 보면 율법에 정통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불순하고 악의 적인 질문이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 악의 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대명제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선향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본문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참 사랑실천의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모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랑실천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명령은 어떠한 명령입니까?

1. 고통의 현장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3-34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통의 현장은 해발 760M인 예루살렘에서 해면 아래 250M의 여리고로 가는 길로서 경사가 깊고 험한 계곡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온 몸에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바로 그 곳을 한 제사장이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종고 지도자와 종사자이었습니다. 그 후, 사마리아인이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강도 만나거의 반 죽게 된 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상처 입어 죽게 된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불우한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은 찾아감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증거 하시며 참 사랑은 하나님이 범죄 한 인간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 한 아담을 찾아오셨고, 세리 장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예수님의 명령은,

2.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 했습니다. 참 사랑은 불행에 당한 이웃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기주의로 가득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가 자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신 속죄 기도에서 잘 보여 줍니다.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은 결국 용서하는 마음, 자비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같은 복된 마음, 곧 상처 입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참되고 값진 그리고 아름다운 선행이 나오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예수님의 명령은,

3.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응급처료를 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고 그를 부탁하며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떠납니다. 이는 곧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자에게 쏟는 전인적인 희생입니다. 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앞서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로만 사랑을 외친 사람들입니다. 만일의 경우 바로 그 곳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아마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가 강도 만난 자를 업고 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희철한 무덤 같은 선행을 포함한 종교 내지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 비해 사마리아인은 평범한 사람,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던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인간미 넘치는 사랑 실천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웃” 곧 “플레시온” 은 그들의 종교권 안에 있는 동족에게만 제한시킨 단어가 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웃에서 제외시킨 사마리아인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서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그들의 “플레시온” 의 두터운 벽을 헐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영혼과 육체에 상처 입은 이웃을 보고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명하심에 순종하는 사랑 실천의 생명운동입니다.
오늘은 2016년 사랑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혹은 영혼 없는 그저 물질로만 사랑의 주일을 지키지 말고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2 - 37

2016. 9.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은혜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장 1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윤 정 호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로뎀나무)	인도: 김 성 종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15(통512)장	다	같	이
(Prais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박 종 삼 집 사
(Prayer)	(3부) 윤 정 호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대살로니가전서 2장 19~20절(신약 P.329)	박 금 옥 권 사
(Scripture)	[2부] 사도행전 2장 36~47절(신약 P.189)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 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주 능력안에 모든 일 할 수 있네 할렐루야찬양대			
	(안소영)			

설 교	[1.3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I have a dream.	김 성 종 목 사

헌 금 봉 헌	[1.2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3부] 시편 23편(노홍진)	박 예 은 선 생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524(통313)장	다	같	이
(Praise)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에스더여전도회 헌신예배”				
오후 3시	사회: 고문 윤 정 호 장 로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성 시	시편 138편 1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헌 신 결 의	총무 강 은 미 권 사			
찬 양	찬송가 95(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다	같	이
기 도	회장 이 영 숙 권 사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19장 19~21절(구약 p.550)	서기 최 효 자 권 사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진 우 목 사		
예 물 봉 헌	기도 : 회계 박희연 권사	다	같	이
특 송	에스더여전도회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359(통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	같	이
축 도	담 임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기	도 ----- [다음주: 이옥남 권사] -----	김	성 종 목 사
성	경 봉 독 ----- 갈라디아서 6장 7~9절(신약 P.309) -----	인	도 자
설	교 -----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3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뎀나무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9:30 유초등부실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뎀나무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뎀나무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수 말 부 (경로대학)	토요일 오전 10:30 제1교육관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식당

교회소식

◎ 광고

- [에스더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11일) 찬양예배는 “에스더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 [사랑의주일 헌금 결과]
지난 주 “사랑의주일 헌금”은 118명이 1,486,000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아직 헌금하시지 못 한 분들은 로비에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가족 예배]
다음 주일(18일) 3부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합니다. 3부예배 시에 자녀를 위한 축복 시간이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18일)에는 1, 3부예배만 있고, 주일학교 예배와 찬양예배 및 식사는 없습니다.
- [추석연휴기간 예배, 모임 안내]
한 주간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14일)는 있으며, 추석연휴로 목자성경공부, 전도특공대 노방전도, 금요심야기도회, 영어성경학교, 청년부예배, 소망부예배는 한 주간 쉽니다.
- [총동원주일]
“포기하지 않는 사랑/대신자”(갈라디아서 6장 9절)란 주제로 11월 27일(주일)을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총동원주일을 준비하며 예비작정(9/25일, 10/2일), 본작정(10/9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대신자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신자 3행시, 표어 대회]
대신자 3행시, 표어를 10월 7일(금)까지 공모합니다. 대신자 3행시와 표어는 본당 로비에 준비된 응모카드에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행사]
9/11일(주일) 에스더 여전도회 헌신예배
18일(주일) 온가족 예배
25일(주일)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대신자 예비작정
- 추석연휴기간 고향을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며, 믿음의 가정은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여전도회 월례회(3부예배후/본당)	* 남전도회 월례회(3부예배후/본당)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신유민 어린이	문수경 전도사	드보라 여전도회	황성연 집사	드보라 여전도회	청년부
다음주	민옥희 권사			오택현 집사		한나 여전도회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9월 1주(4일)	유현호 집사	최기훈 장로	유복자 권사	윤병호 장로	오택현 집사	민옥희 권사	
2주(11일)	박종삼 집사	윤정호 장로	박금옥 권사	윤정호 장로	이영숙 권사		
3주(18일)	장윤주 집사	배경철 장로	이강우 권사				이옥남 권사
4주(25일)	홍정훈 집사	임만순 장로	이근자 권사	윤영준 집사	장윤주 집사	이인숙 권사	
예배안내	정기성 윤조훈 방석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